

Press release

보도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82-70-7914-4942

아우모비오 코리아, 숙명여대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 MOU 체결

- 진로 탐색부터 채용 연계까지 단계별 프로그램 통해 현업 기반의 직무 역량 강화 지원
- 현직자 선배와 함께하는 다양한 커리어 프로그램 전개... 5 월 14 일 ‘캠퍼스 리크루팅’ 실시

서울, 2026 년 4 월 30 일 - 선도적인 기술 및 전장 기업 아우모비오 코리아(구. 콘티넨탈 코리아)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명여대)와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핵심 인재 양성에 나선다.

지난 4 월 29 일 숙명여대와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아우모비오 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진로 탐색, 현장실습, 취업 연계에 이르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아우모비오 코리아는 현업 실무진으로 구성된 ‘아우모비오 앰배서더’와 함께 숙명여대 캠퍼스에서 다양한 커리어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오는 5 월 14 일(목) 숙명여대 켄마홀에서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 비전 및 직무 정보 안내와 더불어 ‘아우모비오스타(AUMOVIO star) 2 기’ 인턴십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 아우모비오만의 조직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글로벌기업 탐방’과 현직 선배의 실무 경험 및 인사이트를 나누는 ‘커리어데이’ 행사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강동윤 아우모비오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숙명여대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 인재들이 글로벌 기술 현장을 경험하고 실무 역량을 키우길 기대한다”며, “아우모비오가 다양성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여성 이공계 인재 양성 노력이 다양한 시각을 지닌 여성 리더들의 성장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협력이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 인재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Press release

보도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82-70-7914-4942

한편, 숙명여대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수행하며 저학년의 진로 설계부터 고학년의 실전 취업 준비까지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숙명여대는 이번 협약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취업 컨설팅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해 모빌리티 특화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망 분야로 진출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우모비오(AUMOVIO)는 2025 년 9 월 본사를 기점으로 독립 기업으로서 새롭게 출범하며, 기존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그룹 부문의 사업을 이어간다. 아우모비오는 기술 및 전장 기업으로서 모빌리티의 안전성, 흥미성, 연결성,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영역은 센서 솔루션, 디스플레이, 제동 및 컴포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플랫폼, 보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우모비오는 2025 년 185 억 유로(한화 약 32 조)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80 여 개 지역에서 약 82,000 명의 직원과 함께하고 있다.

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아우모비오 코리아(주)

+82-70-7914-4942

Hyukchul.choi@aumovio.com

Press release

보도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82-70-7914-4942

사진자료/캡션



사진자료 1_아우모비오 코리아, 숙명여대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 MOU 체결

아우모비오 코리아가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핵심
인재 양성에 나선다.



사진자료 2_강동윤 아우모비오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우)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좌)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지난 29 일 숙명여대에서
진행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강동윤 아우모비오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왼쪽)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자료 3_아우모비오 코리아-숙명여대 산학협력 MOU 체결식 기념촬영

아우모비오 코리아와
숙명여대의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해,
강동윤 아우모비오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가운데 왼쪽)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가운데 오른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